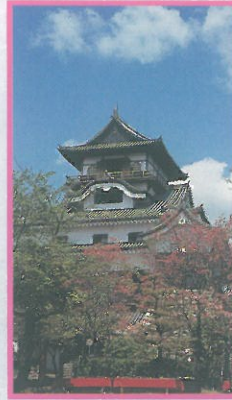


이누야마성의 연혁

이누야마성은 1537년에 오다노부나가의 숙부에 해당하는 오다 요지로 노부야스에 의해 축성되었습니다.

전국시대였으므로, 그 후 몇 대나 성주가 바뀌었습니다만, 1600년에 있는 세키가하라 전투 무렵을 중심으로 성곽은 정비되어 있습니다.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1584년) 무렵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에서 12만여의 대군을 이끌고 이 성에 들어가, 고마키산에 진을 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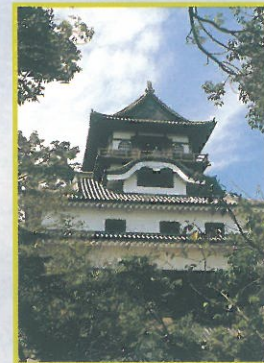
에도시대가 되어 오와리번의 부가 로라는 직책을 맡았던, 나루세 하야토노카미 마사나리가 1617년 성주가 되고부터는 나루세 가문이 대대로 이어받아 메이지에 이르렀습니다.

1871년 9대째 나루세 마사미츠 때에 폐번치현으로 폐성이 되어 누각과 성문 등 천수각을 제외한 건물은 거의 철거되었습니다.

1891년(메이지 24년)의 노우비 대지진으로 천수각 동남각의 망루 등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재차 나루세 가문이 소유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세만 태풍으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1961년부터 1965년까지 4년간에 걸쳐 해체 수리가 실시되었습니다.

1935년 국보로, 1952년 규칙개정 때 따라 새로이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보인 이누야마성, 히코네성, 히메지성, 마츠모토성의 4성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입니다.

2004년 4월, 재단법인 '이누야마성 하쿠테이 문고'가 설립되어 성의 소유자는 개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수각 구조의 개요

총연면적

698.775㎡(지하층 1, 2층 출입구를 포함)

구조형식

망루식

외관

삼중(내부 4층, 석담안에 2층)

일층

난도노마(282.752㎡)

중앙부 4실로 구획되어 있으며, 서남부에 마루가 7치 높고, 상단의 방은 남쪽에 면하여 있으며, 특별실로 되어 있다. 창건당시 성주의 거실로, 그 북쪽이 무사들이 숨는 다다미 8장의 방으로, 만일의 사태를 경호하는 무사들의 대기소이다. 동쪽의 2개의 방은 모두 창고로서 다다미 6장과 8장으로 되어 있고, 이상의 4실을 둘러싼 2칸 너비의 판자 사이는 '무사바시리'라는 복도이다. 쇼와시대에 있는 해체공사시에 1891년의 노우비 대지진으로 망가졌다는 동남쪽의 망루(15.22㎡)와 서북쪽의 '이시오토시마(7.17㎡)'를 복원하였다.

이층

부구노마(246.006㎡)

중앙부가 무구용 방으로 서북동의 삼방향에 걸쳐 무구선반이 있다.

삼층

하후노마(81.936㎡)

이 당나라식 박공은 1537년 천수가 축성되었을 때부터 77년후인 겐나에서 조쿄 연간에 걸쳐 70여년 사이에 나루세 성주가 증축한 것.

사층

고란노마(49.835㎡)

사방으로 다다미 약 반 장 정도의 회랑과 난간이 있어 전망이 아주 좋다.

천수의 돌담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올린 석담으로, '노즈라즈미'라 불리운다.

경사는 완만하고 그다지 높지 않다. 석담의 높이 5m, 천수의 높이 19m